답답해서 죽고 싶을 때

성경말씀: 욥19:1-27

배경 설명

기록 시기: 주전 2100-2200년경, 성격: 지혜 문학, 기간: 약 1년
이름: 이 책의 이름은 라틴어 성경에서 나왔으며 욥은 '고난 당하는 자' 혹은 '미움을 받는 자'를 뜻한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욥이 아브라함 이전에 산 것으로 생각한다. 에스겔서 14장 14, 20절과 야고보서 5장 11절 등은 욥이 역사적인 인물이었음을 보여 주며 따라서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간주된다.
주제: 욥이 당한 시험과 고난당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
목적: 의인이나 악인이나 고난을 당할 수 있으며 사람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고 신자의 삶에서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욥은 자식도 많고 재산도 풍부하여 동쪽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자였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욥의 믿음을 시험해도 좋다는 허락을 얻은 뒤 먼저 욥의 소유물과 가족을 빼앗고 이어서 독한 종기로 그의 전신을 쳐서 그를 괴롭혔다. 욥이 고난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그를 찾아와 전통적인 교리에 서서 욥이 악을 떠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다시 행복하게 해 줄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욥은 이에 항거하였고 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이때에 젊은 사람 엘리후가 양편에 잘못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분개하여 충고하고 중재를 시도하지만 결말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엘리후의 말도 불완전하였으며 최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심으로 결말이 난다.

인생의 어려움

가장 답답할 때: 아내나 옆의 친구들이 자기 말을 믿어 주지 않을 때
아내의 말(욥2:9),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1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하고 욥을 위로함(욥2:12-13).
3장에 욥이 자기의 태어난 날을 한탄함
엘리바스, 빌닷, 소발(4-11장)
엘리바스, 빌닷, 소발(15-20장)
친구들의 요점, 악한 일을 했으므로 마땅히 하나님께 보응을 받는다.
18장의 빌닷의 말: 17-21,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인생은 어려움의 연속이다. 가정, 결혼, 직장, 공부, 신앙생활 등
특히 말들로 인해 오해를 받으면 죽고 싶을 때가 누구나 있다(1-4절).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한다. 덕을 세우는 말
어려울 때는 가만히 옆에만 있으면 된다(롬12:15).

욥의 자기 상황 표현

1. 덫에 갇힌 짐승(6절), 욥은 하나님의 덫에 걸려 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모른다.
2. 심판석에 앉은 죄인(7절)
3. 길이 꽉 막혀서 꼼짝 못하고 갇힌 여행자, 사탄의 대적하는 말(욥1:9-12), 8절
종종 하나님은 꽉 막힌 길로 성도들을 인도하신다. Dead end street
조용히 하나님의 때에 그분께서 빛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스스로 빛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의 빛을 빌려오지 말라.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가르쳐 주신 것을 어둠 속에서 의심하지 말라."
어둠의 계곡을 잘 넘어간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다.
모세, 40년 동안 미디안 생활, 요셉, 다윗 등
4. 왕좌에서 쫓겨난 왕 같은 상황(9절).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다.
5. 무너진 건물(10절), 사방을 봐도 소망이 없다.
6. 뿌리 뽑힌 나무(10절)
7. 포위당한 도시(11-12절)

욥의 완전한 고립(13-22)

재난과 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
형제들, 아는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 종들, 아내, 어린아이들
그 결과: 잇몸만 가지고 피신하였다(20절).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사람들의 비난: 그는 죄를 지었다. 사악한 자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죄인과 쫓겨난 자들과 함께 하신다
세리와 창녀와 어린아이들과 어부들과 함께 하신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사53:3)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잘 대해야 한다.

욥의 소원(23-24)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하기 전에 욥은 죽을 줄로 알았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가 당한 것을 기억하기를 바랐다.
빌닷은 18:17절에서 그에 대한 기억이 사라진다고 했으므로 이에 대한 반박임.
이미 문자를 가지고 있었다.

욥의 최종 소망(25-27)

3장부터 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 헤맨다.
욥기를 읽어 보면 욥이 마치 믿음 없는 자처럼 말하는 것을 볼 때도 있다.
누구나 믿음 생활의 변동이 있다.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침체기가 있게 마련이다.
믿음 생활이 처음부터 끝까지 평탄한 고속도로로 되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스펄전 목사의 침체기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내게는 나를 구속할 구속자가 있다.
마지막 날에 땅 위에 서서 공의를 심판하실 분이 있다.
구속자: 물러 주는 분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나 상속 재산이 있다. 그가 죽으면 그의 자손이 그것을 대대로 물려받는다.
그런데 자손이 없으면 친족 중에서 그것을 되찾아주는 사람이 있다.
돈이 없으면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구원해 줄 사람이 구속자이다.
침해를 당한 친척을 위해 구속자가 법정에 가서 그를 변호할 수도 있다.
이것이 구속자이다. 룻을 되 사준 보아스처럼. 룻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
욥은 9:33-34에서 심판이 있었으면 좋겟다고 했고 16:19에서는 하늘에 변호자가 있으면 좋겟다고 했다. 그러다가 이제는 구속자를 원한다. 그 이유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욥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의 상속 재산과 권리를 찾아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는 죽는다 해도 마지막 날에 자기의 구속자가 자기를 위해 자신의 정당함을 찾아 줄 것을 믿었다.
그 구속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올리브 산에 재림하셔서 땅위에 서신다.
26절 설명: 살이 다 없어져도 내가 부활해서 육체 안에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즉 구속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개역성경은 이것을 '육체 밖에서'로 오역을 했다.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다.
성경의 몸의 부활을 말한다.
27절: 내가 직접 내 눈으로 그분을 볼 것이다(단12:13).

결론

인새여정에는 답답한 일이 많다.
의인인데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고난을 당한다.
구속자 주님과 몸의 부활을 믿자. 거기에 우리의 최종 소망이 있다. 사람 앞에서 변명하려 하지 말자.